

사회복무요원 부실 관리 지자체 도마

폭행·성추행 발생 당시 현장에 관리자 없어

광주 서구 “점심시간이라 함께 있지 않았던 것”

광주의 한 지자체에서 공원 관리 업무를 하던 사회복무요원이 해당 공원에서 초등생을 폭행하고 성추행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지자체의 부실한 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6일 광주지방경찰청과 광주 서구 등에 따르면 A씨(24)는 지난 3일 낮 12시30분쯤 광주 서구의 한 공원에서 B군(10)을 축구 골대머리고 가 머리를 부딪치게 하고 어깨를 누르는 등 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가 지난달 이 공원에서 C양(9)을 강제로 끼안고 입을 맞추는 등 성추행한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A씨는 성추행과 폭행 사실에 대해 “장난으로 그랬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A씨가 이같은 범행을 저지를 당시 사회복무요원을 관리하는 서구청 공무원들은 현장에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서구청의 부실 관리로 불똥이 튀고 있다.

사회복무요원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익목적 위해 경비, 감시, 보호, 행정업무, 국제협력, 예술, 체육 등에 소집되어 복무하는 자를 말한다.

지자체의 경우 사회복무요원을 병무청으로부터 인계받아 일과시간에 업무 보조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병무청 등에 따르면 일과시간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관리 책임은 지자체의 몫이다.

이에 대해 광주 서구는 A씨가 범행을 저지른 시간이 일과시간이 아닌 휴게시간이라 구청 직원이 현장에 같이 있지 않았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서구청 관계자는 “범행 시간이 점심시간이라 아마 직원이 함께 있지 않았던 것 같다”며 “해당 공원에는 소장과 공무원 직원 2명이 근무하면서 배치된 사회복무요원 2명을 관리·감독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현재 A씨가 경찰 수사를 받는 상황이라 구청에서 직접 조처를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지만 연가 조치 등으로 A씨가 수사를 원활히 받도록 협조하겠다. 이후 수사 결과가 통보되면 복

무관리규정에 따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구청의 이같은 해명에 병무청 관계자는 “사회복무요원도 공무원 근무시간을 준용하기 때문에 점심

시간도 근무시간 내로 본다”며 “점심시간이든 일반 복무시간이든 근무 기간 문란행위가 발생했다면 동일하게 처벌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리 소홀 문제에 대해서는 “병무청 차원에서는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경고 조치 등을 취하지만 지자체 관리 소홀에 대한 문제는 자체적으로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근무 기간 문란행위를 저지른 사회복무요원에게는 경고를 한 후 복무기간을 연장하게 된다. 행정적 처벌과 형사적 처벌은 다르기 때문에 경찰 수사와 관계 없이 병무청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검토한 후 경고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봉우 기자



겨울 앞두고 고속도로 폭설대비 훈련 입동을 이틀 앞둔 6일 오후 경기도 여주시 중부내륙고속도로 서여주휴게소 인근에서 실시된 고속도로 폭설대비 유원기관 합동훈련에서 폭설로 인한 차량 미끄러짐 상황을 가정해 경제 및 고립차량 구조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신안군수 ‘지시’ 따른 공무원만 중징계...단체장 책임은?

감사원이 지난 2017년 신안군의 세계해태테마전시간 조성사업 추진과정에서 ‘부당한 계약업무 처리가 있었다’며 관련 공무원 4명에 대한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하지만 부당한 지시를 내린 당시 단체장에 대한 책임은 묻지 않고 지시를 따른 공무원들만 불이익을 받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6일 신안군에 따르면 감사원은 최근 감사를 통해 신안군이 전시관 조성을 위한 해태상과 수석 구입과정에서 위법 행위를 적발하고, 업무를 수행한 직원 4명에 대해 중징계와 경징계 이상 징계처분을 하라고 신안군수에게 요구했다.

중징계 처분을 요구받은 직원은 계약부서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사

업자등록증이 없는 특정인과의 계약을 통해 해태상 116점을 5억 원에 구매하고, 수석 100점도 관련 절차를 거치고 개인과 7억9790만 원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혐의다.

또 다른 중징계 처분 직원은 이와 관련해 재무관에 보고하지 않고 신안군수의 직인을 날인해 계약을 체결하고, 해태상 기탁자용 숙소를 공원조성계획 변경을 하지 않은 채 전시관 신축공사 발주계획에 포함해 공사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징계 이상 처분을 요구받은 직원은 계약체결 권한이 없으면서도 신안군 재무관 명의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군수의 직인을 날인해 수의계약 체결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휴양시설을 위한 펜션을 구입하면서 의회 승

인전에 미리 감정평가를 실시토록 하고 세부계획 없이 공유재산을 취득한 직원도 경징계 대상이다.

전남도는 감사원의 결정에 따라 이들에 대해 징직 3개월과 감봉 3개월, 경책 등의 징계를 내릴 것을 신안군 인사위원회에 조만간 통보할 예정이다.

군청 내부에서는 전일 군수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직원들만 억울하게 징계를 받게 됐다. “불면소리가 흘러나온다.”

신안군 한 직원은 “인사권을 쥐고 있는 단체장의 지시를 거절할 수 있는 공무원이 몇 명이나 되겠냐”면서 “최종 지시를 내린 당시 군수를 제외하고 직원들만 처벌하는 건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뉴스1

신생아 침대에 던진 50대 산후도우미 영장

생후 25일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산후도우미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6일 광주 북부경찰서는 생후 25일된 신생아 학대 혐의로 A씨(59·여)에 대한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전 11시에 진행된다.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 30분쯤 광주 북구 한 주택에서 생후 25일 된 신생아를 침대에 던지는 등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이 신생아가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차례 폭언과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생아 부모는 집 안 폐쇄회로(CC)TV 영상으로 범행 사실을 확인,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신생아는 병원 검진 결과 다행히 건강상 문제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정준호 변호사는 “CCTV 확인 결과 생후 25일밖에 되지 않은 아기를 돌보기는커녕 학대를 일삼았다”며 “대부분의 시간을 개인적인 용무에 사용하면서 아이를 방치했다”고 주장했다.

청주서 창고2곳 연쇄 방화 40대 검거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창고 2곳에 잇따라 불을 낸 A씨(48)를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3시43분쯤 서원구 현도면 자신의 창고에 불을 내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은 창고와 판매용 화장지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670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진화됐다.

A씨는 앞서 2시40분쯤 인근에 있는 다른 창고에 불을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창고에서 잇따라 불이 난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은 인근 CCTV를 분석해 A씨를 붙잡았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방화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양주서 어린 두 아들과 50대父 숨진채 발견

6일 오전 8시40분경 경기 양주시 장흥면의 한 고가다리 아래 주차된 차량에서 50대 남성과 어린 두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발견 당시 차량에는 A씨(57)와 아들 B군(6), C군(4) 등 알가족 3명의 시신이 발견됐다.

타살 혐의점은 없으며 차량에는 극단선택을 위한 불을 피운 흔적이 있었다.

A씨는 사망 전 친자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가족으로부터 실종신고를 받고 수색에 나서 A씨의 차량을 발견했으나 이미 숨져있었다.

경찰은 정확한 사망원인과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다.

홍대 인근서 성폭행 시도한 군인 체포

홍익대학교 인근 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상대로 성폭행을 시도한 현역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0대 남성 A씨를 강간미수 등 혐의로 체포해 헌병대에 넘겼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일 오전 2시쯤 홍익대 인근 거리에서 지나가던 여성을 잡아 끌며 때리고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목격자들이 신고하자 A씨는 알몸 상태로 도주하다가 차량 밑에 숨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군인 신분인 점을 고려해 헌병대로 신병을 넘겼다”며 “수사는 군 당국에서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귀 기울여 듣는
성공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광주지역 기업들이 상생협력의 정신으로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는
상공회의소가 되겠습니다.

광주상공회의소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한
새로운 희망!

지역 경제를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제 23대 광주상공회의소 회장 정창선]

중흥건설